[로스쿨 소식]

법전원협의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사업 추진 본격화

Ⅰ. 표준판례 선정작업 추진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최근 법전원협의회 변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승호 교수)를 개최하여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주요 과목의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의 선정작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한국공법학회, 대한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에 각각 헌법·민법·형법의 표준판례 선정작업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2) 기본과목(헌법, 민법, 형법)에 대한 표준판례를 선정하여 법전원 교육에 활용하고, 변호사시험도 이러한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 자격에 필수적인 지식을 테스트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루고자 한다.

(3)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표준판례가 갖는 법리 및 추론의 구조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과목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자격시험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5) 법전원협의회는 관련 학회로부터 10월 말까지 표준 판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법전협 변시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목별 표준판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표준판례에 대해 모든 법전원이 교육 및 시험에 활용토록 유도

Ⅱ.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법전원협의회는 교육과정과 시험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자격시험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월 중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교육과정 표준화: 표준판례의 선정기준, 교육내용의 표준화 및 기준
- 변호사시험의 개선: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변호사시험 출제 방식의 개선, 출제기구 상설화 및 변호사시험 연2회 개최

1. 현행 단기간 합숙출제로 인해 과목별, 시험유형별(객관식, 사례형, 기록형)로 표준화되지 않아 매년 난이도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적절한 문제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2.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를 위한 상설 기구 설치와 연 2회 변호사시험 개최를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자격시험 제도 정착을 위한 테스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연 2회 변호사시험 실시